

부모의 유머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rents' Humor Styles o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오연경¹ 황혜신²

Yeon Kyeung Oh¹ Hae Shin Hwang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humor style on their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Methods: Parental humor styl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measured in 306 parents and their 153 young children enrolled in a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total of 459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used in producing basic statistics and a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program were performed.

Results: First, parents with young children were found to use humor above the medium level in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especially societal humor. Second, societal, self-expansive, and self-defeating humors used by mother were found to predict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while the humor used by fathers was found to have no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arental use of humor is a common phenomenon these days and is aimed at creating more intimate parent-child interac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other's humorous interaction can bring about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in her child.

key words humor styles,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child interaction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본 연구는 2017년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내리사랑교육연구소 소장

²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hshwang@smu.ac.kr)

I. 서론

최근에는 가족의 크기가 축소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전통적인 부모자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친구 같은 부모, 민주적인 부모의 모습을 지향(손소영, 2013)하고 있다. 더불어 즐겁고, 유쾌함을 지닌 유머러스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임태섭, 1999)가 확산되면서 부모 유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김진영, 2004; 최명선, 최태산, 안재영, 2007).

유머란 웃음을 수반하는 긍정적 정서표현이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허영주, 2010; Martin & Lefcourt, 1983), 표현하는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즐거운 자극을 만들어주며, 타인과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주로 나타

나는 관계적 특성을 가진다. 아울러 똑같은 유머 상황에서도 큰 웃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머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개인의 성향이 유머의 내용보다 우선함을 말해준다. 즉, 유머는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 도구임과 동시에 내적·외적 정서적 성향을 의미하는 요인인 것이다(McGhee, 1976).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와 더불어 부모 자신이 어떠한 정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익새, 남은영, 2015). 정서표현은 출생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정서반응으로, 언어발달이 미숙한 어린연령의 유아일수록 의사소통으로서 강력한 효과(오정민, 2012)를 가지며,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해 나간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해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6개월 이하의 영아도 정서표현을 할 때 자신의 정서보다는 어머니의 표정이나 말투 등의 외적인 정서표현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Malatesta & Haviland, 1985),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더 많은 정서표현을 하고(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 Kochanoff, 2002).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적게 하고(정윤경, 박보은, 2010),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가족이 극심한 분노를 자주 표현할수록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덜 표현하고 숨기고 억제하였다(오지현, 2013). 유아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정서표현의 방법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여은진, 이경옥, 2009).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머(허영주, 2010; Martin & Lefcourt, 1983)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유아는 성인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하여 성인이 웃지 않으면 유아의 웃음도 감소하고(Osborne & Chapman, 1977), 옆 사람이 웃으면 저절로 함께 웃게 되는 동반자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Brown, Wheeler, & Cash, 1980). 12개월 이전의 어린 영아들도 부모가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정이나 행동에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표현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2세 이후의 영아들은 부조화 언어나 말소리의 변형을 즐기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상징놀이가 가능한 유아기에는 상황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부조화 인식이 가능하므로 유머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Piaget, 1952; 양승희, 2003에서 재인용). 특히 부모자녀는 끊임없이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머를 자주 사용한다면 유아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여은진, 이경옥, 2009)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의 방법을 학습해 나갈 것이다(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최근에 이르러 유아유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머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임영심, 전순한, 이경하, 2007),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류현수, 2008) 등, 유머와 긍정적인 정서발달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지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유머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서열과 예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유머는 단순히 즐거운 것, 가벼운 농담쯤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부모의 유머를 살펴본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김지연, 정계숙, 2013; 손영지, 박성연, 2011; 황혜신, 오연경, 2014),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친밀하고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머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가벼운 산물이 아니며(김지연, 정계숙, 2013), 경영, 의학, 교육 분야(신태화, 김명희, 2014; 최남정, 오정희, 2011)에 이르기까지 유머의 활용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한 만큼 부모 유머에 관한 연구 또한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또한 부모 유머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윤경옥, 2011; 이진화, 강은진, 2014)은 대부분 어머니의 유머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 유머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최근에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버지효과(Parke, 2000)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유머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유머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박일, 고영건, 2011; Fox, Dean, & Lyford, 2013) 보고됨을 고려해볼 때,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유머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측에 있어 주의할 점은 모든 유머가 긍정적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이덕로, 김태열, 2013). 우리는 종종 타인의 농담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씩씩함을 느끼기도 한다. 아울러 유아는 개인의 인지적 기술(Varga, 2000)과 정서지능(양승희, 2003) 수준에 따라 부모의 유머를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사용하는 유머의 부조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머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유머가 단순히 즐겁고 유쾌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유머를 사용하는가?’에 관한 양적인 접근과 더불어 ‘어떤 유머를 사용하는가?’에 관한 질적인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덕로, 김태열, 2013). 유머 스타일이란 유머를 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으로 유머의 내용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사용하는 목적이 ‘타인에게 있는가?’, ‘자신에게 있는가?’에 따라 사회적 유머, 자기확장 유머, 공격적 유머, 자기패배 유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Martin, Puhlik-Doris, Larsen, Gray, & Weir, 200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유머는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장해순, 이만제, 2014)을 미치고, 자기확장 유머는 자아 존중감을 향상(강연미, 2005)시키는 반면, 공격적 유머는 대인관계를 손상(Kuiper, Grimshaw, Leite, & Kirsh, 2004)시키고, 자기패배 유머는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Hugelshofer, Kwon, Reff, & Olson, 2006)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머의 변별적 사용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 유머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서는 유머 스타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유머 스타일을 탐색하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유머스타일이 각각 유아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 210명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의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인지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황과 맥락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부조화 인식이 가능하며, 유아 스스로 유머를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김유화, 2009; 김진영, 2004)고 판단되는 만5세와 만6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210쌍의 질문지 중에서 193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유아의 설문지 모두 회수되지 않은 40쌍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유아연령		유아성별	
만5세	77(50.3)	남아	78(51.0)
만6세	76(49.7)	여아	75(49.0)

2. 연구도구

1) 부모의 유머 스타일

부모의 유머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 등(2003)이 개발한 성인용 유머 스타일척도(Humor Styles Questionnaire : HSQ)를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유머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용 유머 스타일 척도에 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성인용 유머 스타일 척도의 하위영역과 동일한 4로 직접 입력하였으며, 공통성 .4이하의 항목을 제거한 후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채택된 부모용 유머 스타일 척도의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53.58%를 설명하였다. 부모용 유머 스타일 척도의 하위요인은 사회적 유머(예: 나는 자녀와 많이 웃고 농담도 많이 한다.), 자기확장 유머(예: 나는 기분이 우울할 때 주로 유머로 기분전환을 한다.), 공격적 유머(예: 나는 자녀를 놀리거나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패배 유머(예: 나는 자녀가 나를 놀리거나 웃음거리로 삼으면 같이 웃는 편이다.) 네 개의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되므로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요인의 유머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유머 스타일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 유머	부모자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긴장을 해소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	7	.84
자기확장 유머	스트레스 상황을 유머러스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모 개인의 능력	7	.82
공격적 유머	부모가 자녀의 약점을 놀리거나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만드는 부적응적 유머	3	.59
자기패배 유머	부모가 자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여 웃음의 대상이 되는 유머	5	.72
전체		22	.83

2) 유아의 정서 표현성

유아의 정서 표현성은 King과 Emmons(1990)의 정서 표현성 질문지(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EEQ)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부모 또는 교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적용한 박수영(2010)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공통성 항목이 낮은 문항은 차례로 제거하고,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유아 개인 및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 표현성(예: 유아는 많이 웃는 편이다.)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유아 개인 및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 표현성(예: 주위 사람들은 유아가 화가 났다는 것을 쉽게 안다.)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 표현성향을 살펴보고자 부모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표 3. 정서 표현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신뢰도
긍정적 정서표현	유아 개인 및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	5	.75
부정적 정서표현	유아 개인 및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표현	4	.70
전체		9	.70

3. 연구절차

1) 1차 예비조사

1차 예비조사는 부모용 유머 스타일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어린이 집의 만5-6세 자녀를 둔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치 않은 문항을 수정하여 2차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2) 2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에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의 만5-6세 유아와 부모 38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9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연구자가 임의 표집한 서울, 경기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만5-6세 유아와 그들의 부모이며, 연구대상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동의서를 함께 배부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각각의 검사 결과지를 작성 후 전달하였다. 또한 부모의 유머 스타일 및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고, 유아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 조절능력은 부모가 함께 상의하거나 유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부모 유머 스타일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를 산출 및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고자 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 유머 스타일의 전반적 경향

부모 유머 스타일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유머 스타일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유머,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 유머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적 유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는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 공격적 유머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유머 스타일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대응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격적 유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M = 2.35, SD = .83$)가 어머니($M = 2.07, SD = .78$)보다 공격적 유머를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1$).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 유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조현지, 김옥영, 2005; Fox, Dean, & Lyford, 2013),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공격적 유머의 양상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 차이

변수	아버지 M(SD)	어머니 M(SD)	t
사회적 유머	3.93(.65)	3.84(.63)	1.17
자기확장 유머	3.23(.67)	3.21(.63)	.33
공격적 유머	2.35(.83)	2.07(.78)	3.04**
자기패배 유머	3.10(.73)	3.00(.68)	1.28

** $p < .01$.

2.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의 유머 스타일과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과 유아의 정서 표현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r = .40, p < .01$) 및 부정적 정서 표현성($r = .19, p < .05$)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자기확장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r = .30,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 또한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r = .28, p < .01$) 및 부정적 정서 표현성($r = .30,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공격적 유머는 유아의 정서 표현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변인보다 어머니의 유머사용이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부모의 유머 스타일과 유아 정서 표현성의 상관관계

	아버지 사회적 유머	아버지 자기확장 유머	아버지 공격적 유머	아버지 자기패배 유머	어머니 사회적 유머	어머니 자기확장 유머	어머니 공격적 유머	어머니 자기패배 유머	긍정적 정서 표현성	부정적 정서 표현성
1	1									
2	.46**	1								
3	-.15	-.27*	1							
4	.39**	.39**	.07	1						
5	.26**	.18*	-.10	.10	1					
6	.24**	.33**	-.10	.14	.59**	1				
7	-.07	-.12	.25**	.01	-.12	-.01	1			
8	.07	.06	-.05	.19	.42**	.40**	.16*	1		
9	.09	.10	.01	.05	.40**	.30**	-.14	.28**	1	
10	-.10	.03	-.08	.08	.19*	.08	-.01	.30**	.16*	1

1. 아버지 사회적 유머, 2. 아버지 자기확장 유머, 3. 아버지 공격적 유머, 4. 아버지 자기패배 유머, 5. 어머니 사회적 유머, 6. 어머니 자기확장 유머, 7. 어머니 공격적 유머, 8. 어머니 자기패배 유머, 9. 유아 긍정적 정서 표현성, 10. 유아 부정적 정서 표현성

* $p < .05$, ** $p < .01$.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유머, 자기 확장 유머, 공격적 유머, 자기패배 유머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표현성은 가계 소득수준(전경옥, 2008)에 따라 다르며, 부모의 유머스타일 역시 부모님의 학력, 연령, 소득수준 등 개인변인에 따라 유머 양상이 달라진다(강연미, 2005; 황혜신, 오연경,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8 이상이고, VIF값은 최대 1.1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의 값은 1.5-2.0 수준으로 잔차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의 유의도가 모두 유의하였으나($p < .001$),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를 제외한 모형에서 선형성이 검증되지 않아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은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사회적 유머가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4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어머니가 자기확장 유머를 많이 사용할수록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26, p < .01$)이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표현($\beta = .23, p < .01$)과 부정적 정서표현성($\beta = .27, p < .01$)을 모두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적 유머와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을 증가시켰다. 부모의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부모의 유머가 긍정적인 정서표현의 도구임을 감안할 때, 어머니가

표 6. 어머니의 사회적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긍정적 정서 표현성						부정적 정서 표현성					
	Model1			Model2			Model1			Model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1	.11	.01	.14	.10	.10	-.06	.10	-.04	-.01	.10	-.01
학력 ^{a)}	1.76	.46	.31***	1.19	.43	.21***	.52	.40	.11	.34	.41	.07
가계소득	.05	.22	.01	.08	.20	.03***	.33	.19	.14	.35	.19	.15
사회적유머				3.14	.60	.40***				.97	.58	.14
F	5.62**			11.83***			2.18			2.35		
R ²	.10			.25			.04			.06		
ΔR^2	.08			.22			.02			.03		

^{a)}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어머니의 자기확장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긍정적 정서 표현성						부정적 정서 표현성					
	Model1			Model2			Model1			Model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0	.11	-.00	.03	.10	.02	-.06	.10	-.04	-.05	.10	-.04
학력 ^{a)}	1.87	.45	.34***	1.62	.44	.29***	.52	.41	.10	.50	.41	.10
가계소득	.09	.21	.03	.02	.21	.00	.34	.20	.15	.34	.20	.14
자기확장유머				1.99	.59	.26**				.10	.56	.01
F	6.80***			8.25***			2.16			1.61		
R ²	.12			.19			.04			.044		
ΔR^2	.10			.16			.02			.017		

^{a)}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어머니의 공격적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긍정적 정서 표현성						부정적 정서 표현성					
	Model1			Model2			Model1			Model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0	.11	-.00	-.01	.11	-.01	-.06	.10	-.05	-.06	.10	-.05
학력 ^{a)}	1.90	.46	.34***	1.88	.46	.34***	.55	.41	.11	.55	.41	.11
가계소득	-.04	.22	-.01	-.02	.22	-.00	.32	.20	.13	.32	.20	.13
공격적유머				-.89	.48	-.14				-.07	.44	-.01
F	6.14**			5.52***			2.11			1.57		
R ²	.11			.13			.04			.04		
ΔR^2	.09			.11			.02			.01		

^{a)}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긍정적 정서 표현성						부정적 정서 표현성					
	Model1			Model2			Model1			Model2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1	.11	-.00	.02	.11	.02	-.06	.10	-.05	-.02	.10	-.02
학력 ^{a)}	1.89	.47	.34***	1.65	.46	.29**	.50	.41	.10	.26	.40	.05
가계소득	-.00	.23	-.00	-.04	.22	-.01	.35	.20	.15	.31	.19	.13
자기패배유머				1.68	.57	.23**				1.68	.50	.27*
F	6.03**			6.91***			2.16			4.55**		
R ²	.11			.16			.04			.11		
ΔR^2	.09			.14			.02			.09		

^{a)}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1), 전문대 졸업(2), 대학교 졸업 이상(3)

* $p < .05$, ** $p < .01$, *** $p < .001$.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녀도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정윤경, 박보은, 2010; Cassidy et al., 2003)을 지지한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표현성을 모두 증가 시켰다. 아울러 부정적 정서 표현성에 대한 영향력($\beta = .27, p < .01$)이 긍정적 정서 표현성에 대한 영향력($\beta = .23, p < .01$)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용하는 자기패배 유머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정서 표현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버지의 유머 스타일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닌 반면,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은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더욱 의미 있는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소은주, 2009; 송하나, 200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만5-6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머 스타일과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유머를 사용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사회적 유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음으로는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의 순으로 많이 사용한다. 사회적 유머란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이며, 자기확장 유머는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해학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머이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유머를 더욱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기패배 유머는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놀림거리로 만드는 부정적 유머에 속하지만 유머의 의도가 자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부모의 유머사용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하였음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과거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표현적 역할을 하였던 반면, 아버지는 엄격한 권위의 상징이자 도구적,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유안진, 1990), 최근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애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머는 단순한 생리적 반응인 웃음과 달리 인지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이해되므로(Piaget, 1952; 양승희, 2003에서 재인용), 부모의 유머사용은 의도된 정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들이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서 표현의 수단으로 유머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늘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친밀한 부모자녀관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부모의 사회적 유머,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공격적 유머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 유머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결과들(조현지, 김옥영, 2005)을 지지한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공격적 유머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관대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남성적 문화에 익숙한 아버지들의 경험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Berlyne, 1972).

본 연구에서 공격적 유머는 다른 유머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 또한 낮았다. 이는 자녀의 실수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웃음거리로 삼아 놀리거나 지적하는 공격적인 유머의 내용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로 기대되는 모습과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공격적 유머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나,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유머 사용을 지양하고 바람직한 훈육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아버지의 유머스타일은 유아의 정서표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반면, 어머니의 사회적 유머와 자기확장 유머, 자기패배 유머는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미있는 농담을 많이 하고, 일상에서 유머러스한 상황을 잘 찾아내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자녀의 웃음을 유발할수록 유아의 정서 표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유머는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하므로, 유아는 유머러스한 어머니와 함께할 때 자신의 정서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유머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의도된 정서의 표현이므로, 유머러스한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자녀의 정서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표현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회적 유머 및 자기확장 유머와 달리 자기패배 유머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 표현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을 놀림거리로 만들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유아로 하여금 많이 웃고,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표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분노와 실망 등의 신경증적인 반응 또한 증가시킨 것이다. 아울러 어머니의 자기패배 유머는 긍정적 정서 표현성보다 부정적 정서 표현성에 더욱 의미 있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자기패배 유머의 목적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끌거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부정적 유머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아기는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충분히 표현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므로, 어머니의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등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는 긍정적 측면의 유머를 사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인 반면, 아버지의 유머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서표현 도구의 하나인 부모의 유머는 공격적 유머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양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유머는 미소 짓기, 스킨십, 칭찬하기 등의 다양한 정서표현과 더불어 나타나지만, 아버지의 정서 표현은 상대적으로 유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

아가 나타내는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의 정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윤보람, 2010; 한유미, 손경화, 2004), 이러한 특성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머가 유아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울러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보육중심의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의 유머는 자녀와 식사할 때, 씻을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재미있는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유아는 어머니의 유머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서표현 중 하나로 학습하게 할 것이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일상적인 양육보다는 목적이 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이자형, 김혜영, 2004; Parke, 2000), 유아는 아버지의 유머는 정서표현으로 학습되기 보다는 대인관계를 유연하게 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임미화, 2011; Lyttle, 2007)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부모유머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유머를 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부모의 유머를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유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모 유머의 효과를 밝힘으로써 현대사회의 부모자녀관계를 살피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가벼운 것으로 여겨져 왔던 부모유머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으며, 유머사용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유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효과가 각기 다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함께 참여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아버지들이 긍정적인 유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유머의 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유머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나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머 교육과 더불어 유머를 활용한 대화법이나 놀이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부모교육의 도구로 활용이 기대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머의 효과가 부모의 의도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유아가 부모의 유머를 이해하는 인지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높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부모 유머 스타일의 효과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종속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어머니에게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검증된 요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더욱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성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유머의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유머 스타일과 유아의 정서 표현성의 관계에서 아버지 변인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공격적 유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호의 대상인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공격적 유머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과 상반됨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의 일관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공격적 유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유머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지향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표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대 사회의 부모들에게 바람직한 유머 사용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모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연미 (2005). 위험생활사건과 유머 스타일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화 (2009). 유아의 유머 특성 및 또래 관계 속 유머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와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탐구. **생태유아교육연구**, 8(3), 151-174.
- 김지연, 정계숙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생애학회지**, 3(1), 59-77.
- 김진영 (2004). 유아들의 유머와 친구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113-133.
- 류현수 (2008). 유머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수준에 따라 유아의 자아개념 및 유머이해도와 감지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1), 119-142. doi:10.18023/kjece.2008.28.1.006
- 박수영 (2010). 교사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정서 표현성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 고영건 (2011). 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유머 스타일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 308-308.
- 박일새, 남은영 (2015).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5-153.
- 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2008). 정서자각 결함, 정서 표현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신체화, 우울, 스트레스 경험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571-581. doi:10.17315/kjhp.2008.13.3.002
-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2015).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정서 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89-207.

- 소은주 (2009).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유아의 혼합정서이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소영 (2013). 아버지 역할이 나타난 TV광고 분석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217-227.
- 손영지,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8**(2), 125-144.
- 송하나 (2006).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애착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3**(3), 39-55.
- 신태화, 김명희 (2014). 상사의 유머가 상사의 신뢰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 특1급 호텔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7**(5), 55-75.
- 양승희 (2003). 정서 지능 수준에 따른 유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과 유머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은진, 이경옥(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성,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조절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75-295.
- 오정민 (2012). 미술치료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2**(2), 189-213.
- 오지현 (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경옥 (2011). 유머감각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보람 (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87-199.
- 이덕로, 김태열 (2013). 상사의 유머가 부하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와 팀인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1**(1), 29-63.
- 이자형, 김혜영 (2004). 학령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건강학회지**, **7**(1), 50-60.
- 이진화, 강은진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1), 6576-6586. doi:10.5762/kais.2014.15.11.6576
- 임미화 (2011). CEO의 유머감각이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심, 전순한, 이경하 (2007). 유머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8**(2), 165-184.
- 임태섭 (1999).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가치관: 전통과 변화. **커뮤니**

- 케이션학 연구, 7, 52-66.
- 장해순, 이만제 (2014). 유머감과 유머 스타일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5, 308-334.
- 전경옥 (2008). 저소득가정 부모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감정조절능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조현지, 김옥영 (2005). 유머 종류에 따른 유머 선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성별,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1, 355-378.
- 최남정, 오정희 (2011). 유아교사의 유머감과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6, 45-67.
- 최명선, 최태산, 안재영 (2007). 청소년의 유머감각, 유머 스타일이 리더십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5), 149-167.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손경화 (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 197-206.
- 허영주 (2010). 예비교사의 유머감과 유머 스타일이 교사교육에 요구하는 변화. *교육방법연구*, 22(2), 19-49. doi:10.17927/tkjems.2010.22.2.19
- 황혜신, 오연경 (2014). 부모의 유머 스타일과 아동의 정서성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 199-211. doi:10.6115/fer.2014.52.2.199
- Berlyne, D. (1972). Humor and its kin. In J. Goldstein, & P. McGhee (Eds.), *The psychology of humor* (pp. 43-60). New York: Academic Press. doi:10.1016/B978-0-12-288950-9.50008-0
- Brown, G. E., Wheeler, K. J., & Cash, M. (1980). The effects of a laughing versus a nonlaughing model on humor response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9(2), 334-339. doi:10.1016/0022-0965(80)90024-7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doi:10.2307/1131349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311-343. doi:10.1300/j002v34n03_06
- Fox, C. L., Dean, S., & Lyford, K. (2013). Development of a humor styles questionnaire for children. *Humor*, 26(2), 295-319. doi:10.1515/humor-2013-0018
- Hugelshofer, D. S., Kwon, P., Reff, R. C., & Olson, M. L. (2006). Humour's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attributional style and dysphoria.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4), 325-336. doi:10.1002/per.586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doi:10.1037//0022-3514.58.5.864
- Kuiper, N. A., Grimshaw, M., Leite, C., & Kirsh, G. (2004).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or*, 17(1/2), 135-168. doi:10.1515/humr.2004.002
- Lyttle, Jim. (2007). The judicious use and management of humor in the workplace. *Business Horizons*, 50(3), 239-245. doi:10.1016/j.bushor.2006.11.001
-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5). Signals, symbols, and socialization.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5, 89-116. doi:10.1007/978-1-4613-2421-8_5
- Martin, R. A., & Lefcourt, H. M. (1983). Sense of humor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ors and moo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6), 1313-1324. doi:10.1037/0022-3514.45.6.1313
- Martin, R. A., Puhlik-Doris, P., Larsen, G., Gray, J., & Weir, K.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uses of humor and their relation to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the humor styl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1), 48-75. doi:10.1016/s0092-6566(02)00534-2
- McGhee, P. E. (1976). Children's appreciation of humor: A test of the cognitive congruency principle. *Child Development*, 47(2), 420-426. doi:10.2307/1128797
- Osborne, K., & Chapman, A. J. (1977). Suppression of adult laughter: An experimental approach. In A. J. Chapman, & H. C. Foot (Eds.), *It's a funny thing, humour* (pp. 429-431). Elmsford, NY: Pergamon. doi:10.1016/b978-0-08-021376-7.50084-x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doi:10.1300/j002v29n02_04
- Piaget, J. (195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5), 413-414. doi:10.1037/h0052104
- Varga, D. (2000). Hyperbole and humor in children's language play.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4(2), 142-151. doi:10.1080/02568540009594759

논문투고: 18.02.14
수정원고접수: 18.11.12
최종게재결정: 18.12.03